

#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작용하는 변인과 정책적 함의

梁 順 美\*(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I. 문제제기

행복은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서, 실제로 행복을 주제로 하여 연구한 Fordyce(1981)나 Kammann(1979)은 개인적인 행복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되어 왔다고 하였다(허유평, 2001, 재인용).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가 실현될수록 사람들은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 및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래서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불행해 하기도 한다. 또한 행복에 대한 정의는 문화나 역사적 상황에 따른 규범적 기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Olson, McCubbin, Barnes와 Larsen(1983)이 주장하는 복합순환 모델의 곡선적 가족을 지지하는 데에는 가족체계에 관한 문화적·윤리적 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김수진, 1997, 재인용)은 위와 같은 견지를 조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는가 하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善)인 행복을 느끼는 데는 어떤 공통의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행복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어왔고 관심 있는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Aldous와 Ganey(1999), Lee, Seccombe와 Shehan(1991), Wood, Rhodes와 Whelan(1989)은 개인간의 행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기존에 밝혀진 단순한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나 결혼상태 및 젠더에 의한 차이로 설명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의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행복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망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복에 가족생활의 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순미(2004)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중년기 농촌 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 ysm@rda.go.kr

그렇다면 국내혼인한 부부들 보다 언어적 장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가중되어 적응과정이나 결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양순미, 20006c, 2006d) 국제결혼 부부들의 행복 특성과 이들의 행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행복수준에는 성별 및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들의 행복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여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이 국내혼인한 부부들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행복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농촌의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이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한 농촌의 부부들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부부를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한 집단으로 제한한 것은 첫째,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농촌의 국제결혼부부 중에서 이들 출신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0%이상을 상회(양순미, 2006a, 2006b)<sup>1)</sup>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0%를 상회(양순미, 2006a, 2006b)하기 시작한 베트남인이나 기타 소수를 점유하는 출신국가의 집단들은 조사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언어소통상의 장애를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은 2005년 7월 4일 부터 8월 12일 사이에, 전국 6개도 6개 시·군 40개면 110개 마을에서 총 150쌍을 표집하였는데 이중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50쌍,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49쌍,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51쌍이 조사되었다. 조사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로 구성된 조사원 4인이 조사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설문면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로,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아내가 35.37세, 남편이 42.43세 이었으며 아내의 평균학력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반면 남편은 중학교를 중퇴한 수준이었다. 아내의 약 77%, 남편의 약 63%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약 62%, 남편의 91%가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언어 및 정서적인 학대를 포함하는 폭력경험여부에 대해 아내의 약 41%, 남편의 3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생활교육 이수경험에 대해 아내의 약 55%와 남편의 4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1) 전국 6개도(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에 작성하여 2005년 5월에 제공한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자료를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출신국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했으며, 아내의 약 35%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응답한 가족의 약 11%가 자녀가 없으며, 나머지 89%가 1자녀~4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평균 자녀 수는 2.13명이었다. 이들 부부의 결혼지속 기간은 평균 80.61개월이었다(양순미, 2006d; 양순미·정현숙, 2006).

## 2. 척도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또는 행복의 요소는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복에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해 온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Kurdek(1991), Costa, McCrae와 Zonderman(1987)은 연령, 수입, 인종, 교육,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지표가 행복에 관한 변량을 4~6%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Aldous와 Ganey(1999)는 행복의 구성요인을 결혼만족, 가족생활만족, 결혼상태, 직업에 대한 만족,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Headey(1984)에 의하면 행복은 교우관계, 가족관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의 성취나 성공 등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일상생활로 부터 나온다고 하였다(정운선, 1993, 재인용). Scheier, Weintraub와 Carver(1986)도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박영금(1978)은 결혼행복의 구성요인을 부부상호간 의견일치, 어린시절의 부모·자녀관계, 자녀문제, 사회·경제적 지위, 여가생활, 애정·갈등, 성생활의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허유정(2001)은 정적·부정적·친밀한 정서표현, 상담 및 종교의 유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되는 변인을 아내의 출신국가·종교유무·영농활동 참여여부·생활수준·폭력경험여부·자녀유무·결혼지속기간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자아존중감·자기노출정도·개인의 국제 결혼생활 적응의 개인적인 변인, 친인척 문제·부부의 상호작용·(시)어머니 친밀도·결혼만족도의 관계적인 변인, 결혼생활교육경험여부·사회활동참여여부의 사회적 변인으로 규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부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행복 변인

가정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행복의 정도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행(1)에서 부터 매우 행복(5)까지의 5점 서열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단일문항으로된 Thomas(1990)의 척도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서 분석과정에서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조화 하여 사용하였다.

###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KMSS(Schumm, 1980; 정현숙에서 재인용, 1997)에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하나 더 추가한 정현숙(1997)의 RKMSS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에서 부터 매우 만족(7)까지의 7점 Likert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아내의 경우 .81, 남편의 경우 .87이었다.

### 3) 친인척 문제 및 (시)어머니 친밀도

친인척 문제 심각도는 양순미(2001)의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없다(1)에서 부터 매우 심각함(5) 까지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시)어머니 친밀도는 전혀 친밀하지 않다(1)에서 부터 아주 친밀하다(5)까지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진 서열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 4) 부부 상호작용

부부의 상호작용 정도는 의견교류, 감정교류, 의논교류, 계획 설정에 있어서 부부가 긍정적으로 함께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Spanier(1976)의 적응척도, 채규만과 최규련(1996)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1)에서 부터 자주 한다(5)까지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정도가 활발한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아내의 경우 .78, 남편의 경우 .78이었다

### 5) 적응

국제결혼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조유리(2000)의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실질적인 문화생활에 대한 적응, 기대, 불일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 수정·보완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되어있으며, 남편(아내)과(와) 남편가족(아내가족)의 관습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또는 현재 국제결혼생활은 기대한 것 보다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으며, 부적절로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부호화의 과정에서 역부호화 하여 처리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아내의 경우 .73이며, 남편은 .78이었다.

### 6)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감정상태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잘 알려진 Rosenberg(1965)의 10문항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아내의 경우 .72, 남편의 경우 .80이었다.

### 7) 자기노출

자기노출은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이고 솔직하고 개방적인 언어적 진술로 자신의 감정, 의견, 건강상태, 신변상의 변화 등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경희(199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1)에서 부터 자주 한다(5)까지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노출의 정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아내의 경우 .75, 남편의 경우 .73이었다.

### 8)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및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변인 중 교육수준, 결혼생활 교육 경험 등을 묻는 척도는 명목형으로 작성하였다. 폭력가해자를 묻는 척도는 정영덕(2004)의 연

구를 인용하여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 연령, 농작업 시간, 자녀 수, 사회활동 참여 내용 등은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필요에 따라 재조합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개인의 단위로 이용되었다. 이는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이에 관련된 변인 또한 개인적인 인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량을 구하고, paired t-test, t-test 및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 관련변인의 일반적인 특성

농촌국제결혼 부부가 인지하는 그들의 생활수준은 중상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백분위로 74~76점 수준, 부부의 상호작용은 백분위 점수로 75~76점 수준으로서, 이들 변인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간의 인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와 남편이 인지하는 자기노출은 백분위 점수로 각각 72.4, 64.1점이었으며, 친인척문제 심각성은 백분위 점수로 각각 36.0, 28.4점 수준으로서 아내가 남편 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의 (시)어머니 친밀도는 백분위 점수로 각각 68.2와 73.4, 결혼생활 적응은 65.2와 72.1, 결혼만족의 수준은 75.6과 81.5점으로서 아내가 남편보다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또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

부부의 친인척문제, 결혼만족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부부간 인지 양상은 농촌의 국내 결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결과(양순미, 2004; 양순미, 2003; 양순미·정현숙, 2005; 양순미·유영주, 2002)와 일치하였다.

<표 1> 행복 관련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아내와 남편간 인지 차이

변인/집단	통계량			
	M(백분위)	S. D.	paired t값	
연령	아내	35.37	6.00	-16.65***
	남편	42.43		
교육수준	아내	3.25	0.82	7.57***
	남편	2.49		

생활수준	아 내	3.73	0.99	0.78
	남 편	3.67	0.96	
자아존중감	아 내	37.15(74.3)	5.26	-1.52
	남 편	38.19(76.4)	6.30	
자기노출	아 내	18.10(72.4)	4.22	4.21***
	남 편	16.02(64.1)	4.45	
친인척문제심각성	아 내	1.80(36.0)	1.04	4.02***
	남 편	1.42(28.4)	0.74	
(시)어머니 친밀도	아 내	3.41(68.2)	0.82	-2.92**
	남 편	3.67(73.4)	0.84	
부부 상호작용	아 내	15.09(75.5)	3.75	-0.55
	남 편	15.29(76.5)	3.56	
적 응	아 내	26.09(65.2)	5.23	-5.09***
	남 편	28.84(72.1)	5.64	
결혼만족	아 내	21.17(75.6)	4.00	-3.77***
	남 편	22.83(81.5)	4.26	

\*\*\*p<.001

## 2.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 수준의 일반적인 경향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농촌의 국제결혼한 부부의 아내와 남편이 인지한 행복 수준은 백분위로 각각 75.0, 77.6점 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행복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선행연구(Lee et al., 1991 등)나 국내 결혼한 농촌의 아내들 보다는 남편들이 행복한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양순미, 2004)와는 다른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의 행복수준은 국내혼인한 중년기 농촌부부들의 행복수준(양순미, 2004)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의 결혼지속기간이 6개월에서 180개월로서 가족형성기에서 부터 중년기에 이르기 까지 좀 더 폭넓은 가족생활주기에 편성된다는 것과 이로 인해 그들의 발달과업이 국내혼인한 중년기 농촌 부부들과는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경제적 이유, 또는 코리안 드림 등에 의해 국제결혼하게 된 동기(양순미, 2006c)도 이들이 비교적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표 2> 성별에 따른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수준의 일반적인 경향

변인/집단	통계량		
	M(백분위)	S. D.	paired t값
행복도	아 내	3.75(75.0)	-1.65
	남 편	3.88(77.6)	

2) 농촌의 아내가 인지한 행복 수준은 백분위 점수로 66.4점, 남편이 인지한 행복은 69.4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양순미, 2004).

### 3.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국제결혼한 농촌부부의 행복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동시투입식 중다회귀분석(multif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내와 남편의 모델은 각각 2.07, 2.14이었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이하로서 회귀 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변인들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아내의 경우 전체 모델의 45%(Adj R<sup>2</sup> : 38%), 남편의 경우 전체모델의 57%(Adj R<sup>2</sup> : 51%)를 설명하고 있었다.

동시 투입식 회귀분석에 의하면, 국제결혼한 농촌의 아내의 행복에 가장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 $\beta = .42$ )이었으며, 다음은 국제결혼생활 적응( $\beta = .19$ ), 결혼생활교육경험여부( $\beta = -.18$ ), 시어머니 친밀도( $\beta = .14$ ), 생활수준( $\beta = -.14$ ), 결혼지속기간( $\beta = -.14$ )이었다. 남편의 행복에 가장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 $\beta = .45$ )이었으며, 다음은 어머니 친밀도( $\beta = .22$ ), 부부의 상호작용( $\beta = .14$ )이었다. 즉 아내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 록, 국제결혼생활에 따른 적응수준이 높을 수 록, 시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높을 수 록, 결혼지속기간이 짧을 수 록,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에서, 결혼생활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보다 경험한 집단에서 행복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남편 들은 그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 록, 친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높을 수 록, 부부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 정도가 높을 수 록 행복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결혼만족도, (시)어머니 친밀도 변인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의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행복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망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복에 가족생활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힌 여러 선행연구 결과(Aldous & Ganey, 1999 ; Lee et al., 1991 ; Wood et al., 1989)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타인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Popenoe, 2005 ; 박민자에서 재인용, 2006)이나,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의한 애정 표현은 행복을 증대시킨다는 주장(Fineberg, 1975),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cheier 등, 1986)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내의 행복에는 국제결혼생활 적응, 결혼생활교육경험여부, 생활수준, 결혼지속기간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제결혼생활 적응 변인의 특성은 결혼생활적응이 가족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유영주 등(1996)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수준이 아내의 행복에 부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경제적인 여건은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입의 효과는 타인들의 수입과 비교한 사회적 비교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Freedman(1978)의 주장(정윤선, 1993,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생활수준이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긴 하나 충분조건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박민자, 2006)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아내들 자신들의 출신국가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사회문화적 비교와 이의 반영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사람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거나(Hoggard, 2005), 사회참여가 행복을 위

해 중요하다는 주장(Putnam, 2000)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생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경험한 집단의 아내들의 행복도가 높은 양상은 국제결혼한 아내들에 대한 교육기회제공은 단순히 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우리 사회에 그들이 소속되어있다는 것과 인정받고 존중받는 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지속기간이 행복에 부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은 결혼초기와는 달리 자녀출산이후에 자녀 양육기를 거치면서 부부 상호작용과 응집의 기회가 약화되고 역할이 과다해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되어진다. 이것은 가족주기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이 곡선적으로 변화한다는 보고(Rollins & Feldman, 1970)나,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박미령, 1987)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농촌의 국제결혼부부인 아내와 남편의 행복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이나 영향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은 국내결혼한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양순미, 2004)와 일치하였다.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성에 따른 가치나 역할이 이중적으로 구조화되어 동일한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 부부간에 다름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양순미·유영주, 2002)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성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인지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결혼만족도, (시)어머니 친밀도 변인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변인들은 관계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변인들로서, 개인의 행복에는 가족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수반되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n=150쌍)

변 인	아 내	남 편
	B(β)	B(β)
아내의 출신국	0.07( 0.05)	0.04( 0.03)
종교유무	-0.11(-0.07)	-0.03(-0.02)
교육수준	0.04( 0.05)	-0.03(-0.03)
영농활동참여여부	0.01( 0.01)	-0.10(-0.04)
생활수준	-0.09(-0.14)*	-0.07(-0.08)
폭력경험여부	0.01( 0.01)	0.08( 0.05)
자녀유무	0.03( 0.01)	0.23( 0.09)
결혼지속기간	-0.00(-0.14)*	0.00( 0.04)
자아존중감	-0.01(-0.05)	-0.01(-0.06)
자기노출정도	0.01( 0.09)	0.01( 0.05)
적응수준	0.02( 0.19)*	0.02( 0.13)
친인척문제	0.06( 0.10)	-0.08(-0.07)



부부의 상호작용	0.02( 0.14)	0.03( 0.14)*
(시)어머니 친밀도	0.11( 0.14)*	0.20( 0.22)***
결혼만족도	0.07( 0.42)***	0.08( 0.45)***
결혼생활교육경험여부	-0.23(-0.18)*	-0.21(-0.13)
사회활동참여여부	-0.03(-0.02)	-
Intercept	1.29**	0.77
R <sup>2</sup> (Adj R <sup>2</sup> )	0.45( 0.38)	0.57( 0.51)
F	6.43***	10.84***
Durbin-Watson D	2.07	2.14

아내의 출신국(중국=1)<sup>3)</sup>, 종교유무(없음=1), 영농활동 참여여부(안함=1), 폭력경험여부(없음=1), 결혼생활교육 경험여부(없음=1), 사회활동 참여여부(안함=1), 자녀 유무(없음=1)

\*p<.05, \*\*p<.01, \*\*\*p<.001

#### I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농촌의 국제결혼 부부들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농촌의 국제결혼한 아내와 남편 모두의 행복에는 결혼만족도, (시)어머니 친밀도 변인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가족의 유대와 관계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변인들로서, 개인의 행복에는 가족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수반되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단위는 개인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가족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고 가족친화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제결혼한 농촌의 아내들의 행복감에는 결혼생활교육경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결혼생활교육을 경험한 결혼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결혼이민자들 보다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결혼생활교육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사회활동이 단순한 지식획득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혼이주자인 국제결혼 아내들에게는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감과 존중감을 얻는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내들의 폭력경험 여부에 따른 행복감 정도는 p=.05수준에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행복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언어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아내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자아존중감이 상실되어 행복감이 저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법이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교육 방안이 제도적으로

3) 아내들의 출신국을 가변수화 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에 대해 아내들의 출신국에 따라 ANOVA분석 및 사후검정한 결과에 의해서 중국(조선족)은 1로, 일본과 필리핀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중국(조선족)은 일본과 필리핀인에 비해 한국어 및 생활문화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네째, 아내들의 행복에는 결혼지속기간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것은 아내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상과 기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실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가족생활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부부간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자녀양육과 농사일 등 역할이 과다해 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 국제결혼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나 자녀양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 [참고문헌]

- 김수진(1997). 대학생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령(1987). 한국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 성역할태도와 주관적 자원 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자(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제 18집 4호, 183-205.
- 박영금(1978). 결혼생활 행복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선(199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불행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2003).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부부문제해가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31-50.
- 양순미(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9권 2호, 153-172.
- 양순미(2006a). 농촌의 외국인 주부를 위한 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문화복지센터 활성화 교육 교재. 농협창녕교육원.
- 양순미(2006b).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의 사회통합. 2006년도 농촌복지정책과정 교육교재. 농림부 농업연수원.
- 양순미(2006c).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권 5호, 111-128.
- 양순미(2006d).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제16집 2호, 151-179.
- 양순미(2007).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2007년도 농촌복지정책과정 교육교재.
- 양순미·유영주(2002).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자녀청소년기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권 2호, 69-82.
- 양순미·정현숙(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6.

- 양순미·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1권 3호, 223-252.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이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채규만, 최규련(1996). 부부가 함께 말하기 듣기.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허유정(2001). 행복감과 정서표현 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ldous, J & Ganey, R. F(1999). Family lif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20(2), 155-180.
- Hoggard, L.(2005). *How to be happy*.(이경아 옮김, 2006, 예담출판사).
- Lee. G. R., Seccombe, K., & Shehan, C. L.(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happiness : An analysis of trend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39-844.
- Putnam, R. D.(2000). *Bowing Alone*. New York : Simon &Schuster Paperback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llins, B.C.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8.
- Schafer, R. B., Wickrama, K.A.S., Keith, P. M.(1996). Self-concept disconfirm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67-177.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15-28.
- Thomas, V. G.(1990). Determinants of global life happiness and marital happiness in dual-career black couples. *Family Relations*, 39, 174-178.



##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작용하는 변인과 정책적 함의

양 성 은(인하대학교 교수)

국제결혼 부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주목할 때 본 연구는 시의(時宜) 적절성을 지닌다. 또한 연구자가 농촌가족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해온 전문가라는 점 역시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하겠다. 본 토론자는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점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연구가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동질성에 관한 쟁점을 지닌다. 연구대상의 동질성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연구대상 부부의 결혼지속 기간이 6개월에서 15년으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부부의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족생활주기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의 동질성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연구자가 “농촌 국제결혼 부부”라는 포괄적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의 집단간 차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인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은 단순히 출신국가 다르다는 차원이 아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행복에 대해 상이한 신념, 가치관, 규범을 지닌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자료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결혼동기도 연구대상인 일본(94%) 및 필리핀(63%) 이주여성이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는 반면 중국여성(0%)에게 종교적 동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변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데, 중국이나 일본 이주여성의 자녀와 달리 필리핀 여성의 자녀가 지니는 외형적 특징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가능성이 부부의 행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농촌 국제결혼 부부”라는 단순범주화 대신 집단간 차이를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결과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적 함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종속변인인 행복변인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다양한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5점 척도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속변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타당성 있는 종속변인 측정도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생활수준이 아내의 행복에 부적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농촌 국제결혼 부부가 인지하는 그들의 생활수준은 중상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 남편의 대다수(91%)가 영농에 참여하는 농촌부부의 평균적 경제수준, 이주여성의 국제결혼 동기로 작용하는 경제적 요인, 중국(40%) 및 필리핀(51%) 이주여성의 높은 자국 송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생활수준이 아내의 행복에 부적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에 대한 근거 있는 해석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결혼 부부와 국내혼인 부부들의 행복에 작용하는 변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만을 다루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와 국내혼인 부부를 비교하는 작업은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국제결혼부부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주화하여 비교하는 대신 다양성과 차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